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모시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식이 16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의 입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막식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제막식장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함께 꿈결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뜻깊은 2월의 명절날에 학원에 모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제막식을 성대히 진행하게 된 원수들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하여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조선로동당, 무력기관 일군들, 학원의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 각급 부대, 군사학교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군인 가족들, 동상을 모시는데 공헌한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시내 근로자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악단, 조선인민내무군녀 성취주악단의 전후적이며 기백에 넘친 군악례식이 있었다.

이어 조선로동당기와 최고사령관기가 승엄한 분위기속에서 게양되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을 하였다. 제막포가 벗겨지자 혁명가유자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선군혁명의 대를 굳

건히 이어나가는 어엿한 혁명가들로 키워주신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였다. 하늘땅을 진감하며 우렁찬 환호성과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

라 뜻깊은 2월의 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만경대혁명학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구분대, 군사학교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분받아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학원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혁명가유자녀들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경모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차수가 제막사를 하였다.

제막식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제막식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원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성원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

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승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 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아버지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시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아버지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첫 수여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새로 제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군인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력혁신자들에게 새로 제정된 아버지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

창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는 최상의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첫 수여식이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여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당 중앙위원회, 무력기관의 일군들이 수여식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수여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직접 수여하시였다.

열광의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수여해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받아안은 표창자들은 크나큰 격

정과 환희에 넘쳐 솟구치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영광과 행복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역세계 걸어갈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를 시찰하시고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 부대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종훈7연대장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군인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은원수님께 열화같은 호모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 직속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군부대관하 1세대 3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지휘부 일군들, 중대군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

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회관, 도서실을 돌아보시면서 다양한 사상문화교양자료와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 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종합가공실, 군사강실들, 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군부대관하 4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4세대 5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4세대 5중대의 교양실, 병실, 세탁장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종훈정지대 학강실을 돌아보시면서 운영정형을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이어 식당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사들을 위한 날》운영계획을 보시고 지휘관들과 군인가족들이 병사들을 위해 아낌없는 정성을 바쳐가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였으며 조리대에 차려놓은 갖가지 음식감들을 보시고 부식물공급과 소비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공창고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풍농사에 대해 꼭꼭 묻곤 하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 이렇게 가득차있는 풍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종합훈련장에서 진행하는 군인들의 훈련을 지도하시였으며 군부대가 장비

하고있는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였다.

지휘관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동, 강력한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26대 연합부대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어 훈련지휘관으로부터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훈련을 통하여 인민군장병들은 백전

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 전략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셔 가장 존엄있는 천하무적의 강군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이 정말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주체전법을 구현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장병들이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총대로 담보해야 한다는 높은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수호전에 서 자랑스런 공공을 펼쳐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일떠세우고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 지휘관들로부터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사중에 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문주를 보시고 전승기념관의 얼굴이라고 말할수 있는 문주시공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교양마당을 목지화하기 위한 형성안을 보시고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교양마당이 멋있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무슨 종류의 잔디와 어떤 꽃들을 심으려고 하는가를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외무기전시장 형성안을 보시면서 새로 건설하는데 맞게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건설장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전승기념관의 위치가 명당자리이고 형성안도 잘 되였으며 정말 멋있다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 중심주제 《승리》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불수록 잘 형성하였다고 하시며 《승리》상을 창작한 창작가에 대하여 물어주시였다.

건설에 필요한 동생산과 가공정형을 료해하시고 돌가공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우리의 신성한 령명에 침범하였다가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에 나포된 미제무장간첩 《푸에블로》호를 전시할 도크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

방전쟁승리기념관 본관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모시게 될 증양홀에 들어서시어 본관형성안을 주의깊게 보아주시고 형성안이 잘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2층 홀과 원형전시홀을 돌아보시면서 전승기념관의 체모와 품격에 맞게 시공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은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반제혁명사상, 탁월한 령군술과 군사 전략전술 및 전법으로 무장시키는 반미 교양의 거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전승 60돐전으로 완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1950년대에 발휘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이 전승기념관건설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 일당백의 공격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만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무성한 잎새를 펼친 아름다운 거목은 씨앗에서 시작되며 그 씨앗은 자양분을 주고 성장담이 가꾸주는 손길에 있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

오늘 조국땅에 펼쳐지는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번영의 씨앗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하나, 둘 싹트고 자라나 열매맺는것이라 하겠다.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씨앗.

돌아켜보면 총대로 개척된 애국위업을 총대로 수호하고 완성할 의지를 지니시어 1995년 새해의 첫 아침 인민군장병들이 지켜선 다발초소를 찾으신 때로부터 장군님께서 조국땅 방방곡곡에 뿌려놓으신 씨앗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강개와 성강, 락원과 라남, 구성과 대흥단, 한드레별 그 어디에나 그이의 발자취와 뜨거운 숨결이 깃들었다.

눈보라강행군, 폭우와 폭열강행군, 심야강행군이라는 새로운 시대어휘를 외출 때면 사람들은 이제는 집에

오면 러판에 온갖 갈고 렬차에 올라야 집처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신 장군님의 조강도강행군의 나날들을 뜨겁게 새겨보곤 한다.

비바람 세찬 험한 길을 걸으시면서도 인민을 위해 맞는 이런 비는 찬비가 아니라 《육비》라고 하시면서 나는 일없다고, 인민에게 줄 훌륭한 제품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하시면서 비내리

손만대를 받드는 뿌리가 되자고 하시며 인민행렬처럼 타고 끝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나가시였다.

평양밀가루공공장과 룡성식료공장을 찾으시어 몸소 식료품의 맛도 보시고 비날론숨이 쏟아져나온다는것을 아셨을 때는 비날론생산현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신분,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100t초고전력전기로앞에서

는 그이의 모습에는 장군님의 뜻을 이어 조국땅을 행복의 열매가 주렁진 아름다운 선경으로 꾸리도록 하시려는 굳은 의지가 맥박치고있었다.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을 비롯한 공화국에서 일어난 모든 전변들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평양산인 유신중앙연구소, 룡라인유원지, 룡정원과 인민야외빙상장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공화국의 현실을 보며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국땅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다녔가시며 뿌리신 애국의 씨앗들이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

버들까지 울러나는 식수 절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손수 종비나무, 목련을 품들여 심으시고 바람결에 하느님처럼 작고 푸른 잎새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맘을 흠치시

을 세계만방에 빛내어주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으리니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기상을 잘 보여주시였다.

공원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리경월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를 우러른다

리철준

선뜻 발걸음 옮길수 없어라
여기 국가선물관
아버이장군님 우리러
은 겨레가 삼가 올린 선물들
한점한점 순결한 그 지성앞에서

민족을 위한 한길에
쌓으신 업적 하늘에 닿아
선물과 선물마다 기든 사연
이리도 가슴울리고
홀모의 정 이리도 열화같은가

불수록 젓고젓는 마음
이 승용차에선 어려워 않는가
밤이 늦더라도 만나야겠다고
수백리 먼길을 달려오신 그 사랑에
깊이 백발을 숙였던
남녘의 로기업가 고마운 눈물이

뜻깊은 금공에 조선지도
여기엔 담겨져있구나
분별의 아픔을 끝장내시려
관문점까지 나가셨던 장군님
그이 안아오실 통일조국을
가슴껏 안고 살던 그 진정

한자한자 동판에 정성껏 새긴
이 6.15공동선언문
바라보아 감격은 넘치여라
통일대강을 받아안고 터치던

온 남녘의 걱정이 울려와
니 정녕 말해다오
구절구절 진심어린 송시들이여
송학을 새긴 공예품들과
조각장식침대와 의자들이여
드린 사람은 남녘에 해외에
있어도
바라는 마음은 하나 아니었던가

한평생 겨레를 위해
나라의 통일번영을 위해
한몸 불태우시는 장군님
그이의 천만고고를 생각하며
잠시나마 쉬시기를 바라던
그 소원 그 간절함은

아, 얼마나 위대하신가
사상과 제도
정경과 신앙은 서로 달랐어도
은 겨레의 한결같은
매혹과 숭배에 받들려
숭엄히 빛나는 그 한평생은

갈라진 민족
갈라진 강도를
한생 그리도 뜨거이 안으시고
자신의 정과 열로
민족의 피줄 강도의 지맥을
하나로 이어오신 장군님

그이의 존함은 그대로
은 겨레 가슴에 간직하고 산
6.15의 기치였고
그이의 품은 그대로
북과 남이 한뜻으로 산
우리 민족끼리세상이었나니

불멸의 은공에 목이 메여
삼천리에 굽이치던 경모
겨레가 삼가 드린 마음과 마음들이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로
길이길이 칭송하는 선물관이여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
6.15와 10.4선언기치 높이
통일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장군님 애국애족의 성스런 력사도
겨레가 엮어가는 총정의 세월도
변함없이 더 뜨겁게 흐르거니

국가선물관 여기서 나는 우러른다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
장군님의 뜻으로 안아오실 통일
조국
그 삼천리에 넘쳐날 환희와 홀모
우에
해빛같은 미소를 뿌리시는
민족의 영원한 아버이 장군님
모습을!

《2월의 봄 통일음악회》 미국에서 진행

《경례를 받으시라》, 관현악 《발걸음》이 울렸다. 또한 교향곡 《피바다》, 첼로독주 《기러기떼 날으



출연자들은 필승의 선군정치의 사회주의 조선

본사기자

《태양의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제 17차 김정일화추진장을 돌아본 해외동포들의 반향

며 장군님의 태양의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리순옥(제138차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단원)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김정일화추진 아름다운 한생을 사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었지만 그이의 한생은 아름다운 꽃으로 강산에 만발하게 피어났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김정일화와 더불어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게 계십니다.

김영호(중국 단둥시 무역대표)

《2.16 광명성절을 맞으면 서 열리는 제17차 김정일화추진장을 돌아보면서 끝끝내 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

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비롯한 천만군민의 고결한 총정심을 감명깊게 느끼었으며 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게 되었습니니다.

김정일화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세계방방곡곡에서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문희철(재일동포)

《실용정부》 5년은 죄악의 5년, 치욕의 5년



공동선언부정은 북남관계파국의 원인

기자: 북남관계가 지난 5년간 파국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온 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의 반6.15책동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전병훈: 옳은 말이다. 돌이켜보면 북남공동선언발표 후 북과 남사이에는 서해선협치와 도로개건보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건설, 고성공업지구건설확대 등 북남합의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민족적화해와 협력의 판계로 전환되고 삼천리강토위에 자주통일의 거대한 열풍이 휘몰아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북남공동선언들이 안아온 자량찬 결실이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으로 하여 우리 겨레의 통일위업은 엄청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집권전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원론적》이니, 《추상적》이니 하고 시비해왔던 리명박역도

참가자

전병훈: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윤정호: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위원
사회: 본사기자

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전 《정권》이 합의한 것을 새 《정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놓고 부정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이 《한달만에 무너진 《10년평화합》》이라고 개탄할 정도로 리명박패당의 반통일적책행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윤정호: 그렇다. 남조선의 리명박보수세력은 집권후 온 민족과 전세계의 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은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해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이니,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무책임한 합의》니 하며 전면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도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을 집권전기간 고집하면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하였다.

《핵문제진전상황에 따라 남북관계를 조절하겠다.》느니 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떠들어온 리명박보수패

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의해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온 6.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북남사이에 채택발표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었다.

전병훈: 그뿐이 아니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북남경제협력의 육동자》로 불리우며 활성화되어온 금강산관광사업이 완전동결되고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공영과 공리를 위한 다방면적인 협력사업들이 차단되는 등 북남사이에선 이루 헤아릴수 없는 엄청난 비극적사태들이 산생되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그를 성실히 리행할것을 요구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끝끝내 고집하며 동족대결에 매달려온 리명박역적패당에 의해 지난 5년동안 6.15의 성과들이 말살되었

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다.

천하의 민족반역자들이 6.15지시자들을 《보안법》에 걸어 란압하고 지어 공동선언들에 수포한 두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두고두고 규탄받을 죄악이다.

실로 리명박역도와 같은 반통일대결광신자, 추악한 사대매국노는 없다. 기자: 북남관계가 앞으로의 전진이 아니라 6.15이전의 대결시대로 밀려 후퇴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에 엄청난 난관이 조성되게 된 것은 북남공동선언리행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절절히 일깨워주었다고 본다.

윤정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새 세기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대강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같다.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처참한 파국상태에 처하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리명박보수패당이 북남공동선언들을 부

정하며 대결을 일삼은 데 있다.

따라서 오늘의 엄중한 북남관계파국을 타개해나가자고 해도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서서 북남공동선언들을 적극 리행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전병훈: 산중장에 불과한 리명박보수패당이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저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을 함리화하며 다음 《정권》에까지 이어놓으려고 최후발악하고있는 것은 억도의 대결근성이 죽어서도 고칠수 없는 악성질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리명박패당에 대한 겨레의 원성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민족반역죄에는 시효가 없다. 온 겨레는 남조선보수세력의 반민족적책행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끝까지 결산하고야말것이다. 그리고 자주통일의 그날을 거룩한 투쟁으로 거머안아올것이다.

북남관계를 돈으로 저울질하다가

게도 그 간판뒤에서 돈으로 저울질하였다. 모든것을 돈으로밖에 계산

이 땅에 출현하지 조차 말았어야 할 더러운 《정권》이 마지막숨을 거둘 시각도 눈앞에 다가왔다. 정말이지 나라난 순간부터 5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 온갖 추악한 행적만을 찍어온 남조선의 리명박 《정부》이다. 그 추악한 행적 가운데서도 신성한 북남관계를 돈으로 저어보며 파란시킨 악랄한 죄악은 지금도 겨레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원래 리명박은 돈밖에 모르는 속물종의 속물이다. 일찍부터 돈을 그려놓는 것을 인생재미로 여겨온 그의 수전노적기질은 이미 근엄으로 굳어졌다. 이러한 속물적근성을 가리우기 위해 자기의 《정부》에 《실용》의 간판을 내걸고 북남관

계를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는 《통일항아리》 놀음도 돈밖에 모르는 리명박의 속물적본성을 잘 보여 주었다. 리명박은 《준비된 통일》이니 뭐니 하기도 우리 겨레의 통일이 돈이 없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내세웠다. 《통일항아리》 놀음으로 분주함을 피워냈으나 그것으로 돈벌레, 반통일분자로서의 자기의 본색은 결코 가리우지 못했다.

리명박은 지난해 4월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도 미사일 한번 쏘는 돈이면 강병이 얼마를 살수 있다느니, 태양열 100층경쟁사를 두고도 무덤하게 《잔치비용》이요 뽀요 하면서 더러운 수전노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리명박은 퇴임을 눈앞에 둔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북이 지금처럼 군사무기개발에 예산을 계속 탕진하면 정권유지가 어려울것》이라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발악해나섰다.

2010년의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이후 발표시킨 《5.24조치》때에는 그것이 《매해 북에 3억US\$의 벌금을 매기게 된다.》느니, 《북이 시간을 끈다고 공작가 아니》라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며 돈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각계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는 《통일항아리》 놀음도 돈밖에 모르는 리명박의 속물적본성을 잘 보여 주었다. 리명박은 《준비된 통일》이니 뭐니 하기도 우리 겨레의 통일이 돈이 없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내세웠다. 《통일항아리》 놀음으로 분주함을 피워냈으나 그것으로 돈벌레, 반통일분자로서의 자기의 본색은 결코 가리우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북남관계사에는 대결광들이 적지 않았지만 리명박이처럼 동족사이의 신성한 관계를 돈으로 저어가며 혈통고 가로막고 파란시킨 회색의 수전노, 특등대결광은 없었다. 이러한 돈벌레, 동족간의 초보적인 상식이나 도덕마저 결여된 대결광이 남조선에서 《대통령》병거지를 쓰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통일을 더디게 하였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겨레와 력사는 리명박의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죄악을 똑똑히 기억하고있으며 철저히 결산할것이다. 리명박은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속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아직도 허황한 꿈을 꾸는 가련한 추물

지난 19일 리명박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교별연설》이라는 것을 하면서 《미래는 결국 통일에 달려있다.》느니, 그 누구의 《변화》니, 《서둘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느니 하며 거니 이 난 《흡수통일》의 홍심을 또 다시 드러냈다.

장마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정조라 한다더니 시대와 력사, 민족의 배격과 버림을 받고 마지막승경을 가는 자의 가련하고 역겨운 추태라 해야 할것이다.

리명박의 집권 5년을 파헤쳐보면 그것은 《체제통일》의 망상에 물든 대결정신병자, 무용병환자의 어지러운 행적이었다. 리명박은 2008년 2월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반동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고 그해 11월 미국정권을 찾아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목표》라는 망발을 공공연히 불어냈다.

리명박이 지금껏 추구해온 《기다리는 전략》이라는 것도 어리석게 그 누구의 《금번사태》와 《흡수통일》을 《기다리는 전략》이었다. 이미 남조선의 언론들도 그에 대해 《북측이 무너지거나 굴하고 들어올 때까지 남북관계가 전면차단돼도 좋다는 발상》이라며 비난하였다.

이런 동족대결적인 《전략》아래 리명박은 집권기간 《비상통치계획-부흥》, 《통일대계탐색연구》보고서와 같은 허황한 각본들을 조작하였다. 2010년 《8.15경축사》라는 데서는 《흡수통일》을 여론화할 목적에 《통일세》니, 《3단계통일방안》이니 하는 망발을 해댔다. 2011년 5월 도이칠란트를 행각하면서 《베를린장벽은 50년 더 걸렸다고 했는데 10개월후에 무너졌다.》느니, 《통일이 멀지 않았다.》느니 하며 《흡수통일》의 허황한 망상을 드러냈다. 그가 2011년 6월 《통일은 도적같이 올것》이라느니, 《한밤중에 올수 있다.》느니 하는

잡모래같은 소리를 늘어놓아만 사람을 웃긴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리명박이당은 《흡수통일》의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전면차단하고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암살소동에 광분해왔다. 또한 모략적인 배라살포와 《북인권》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흡수통일》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는 《통일항아리》타령을 외워대며 대결북풍을 요란하게 두드려댔다.

《흡수통일》의 망상에 빠진 리명박패당의 발악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는 완전 풍지박산이 나고 북과 남사이에는 불과 불이 오가는 죄악의 전쟁국면까지 조성되었다.

리명박이 《흡수통일》의 허황한 꿈을 꾸며 《기다리는》등인 공화국을 더욱 강경해졌으며 강력해졌다. 공화국의 자위적권력, 핵억제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최첨단을 돌파하며 비약의 한길로 나

아가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흡수통일》을 추구하였지만 오히려 남조선사회의 정치적불안인 최고조에 이르고 동족대결과 전선의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온 리명박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환멸과 분노는 극도에 달하였다.

남조선에서 대표적인 보수론객이라 하는 조갑제까지도 북남관계를 파국의 낭떠러지에 몰아넣은 리명박을 두고 《《대통령》의 인기가 내려가니 민족문제로 장난을 치려는듯 하다.》고 조소하였다.

리명박보수패당의 《흡수통일》야망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것과 같은 열빠진자들의 망상이다. 리명박패당이 온 민족의 중외와 저주를 받고 비참한 산중장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현실은 그들이 추구해온 《기다리는 전략》이 결국은 《자기 파멸을 기다리는 전략》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고 있다.

본사기자 최광혁

요즘 리명박이 집권 5년간의 그 무슨 《치적》을 자화자찬하면서 동영상편집물, 자료집까지 만들어 내물리는 뻔뻔스러운것을 하고있다. 그가 《《대통령》 교별연설》이란 그가 《5년동안 남북관계는 걸로 보기와는 달리 안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느니, 《남북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서 온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느니 하고 떠든것도 낮가지 품의 발바닥같은 자의 꾀변이다.

지난 5년간 북남관계를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과연 《변화》니, 《원칙》이니를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리명박역도가 집권기간 저지른 죄악중의 죄악은 북남관계를 전면파란시킨것이다. 뼈속까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물든 리명박은 《북은 지금처럼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으로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며 집권초기인 2008년 3월 통일부에 《북에 어떤 대화제안이나 접촉도 하지 말라.》는 지시부터 내렸다. 리명박은 통일부의 임무와 직능을 애당초 《체제통일》로 정

하고 통일부에 있던 대화와 협력부서들을 축소, 폐기하였으며 요직에는 전례없이 악질적인 동족대결분자들을 련이어 임명하였다. 《북남화해협력사업의 육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사업부터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리명박은 모략적인 함선침투사건을 조작해내고는 그를 수전노로 《5.24조치》라는것을 발표하여 북남관계를 전면단절했다.

《변화》냐, 파산이냐

한편으로는 외세와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매일과 같이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경계로 끌고간것이 바로 리명박패당이다. 리명박이 집권기간 그 무슨 《금번사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비상통치계획-부흥》, 《통일대계탐색연구》 등 대결각본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체제대결과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한 《통일세》, 《통일항아리》와 같은 광대놀음에만 기를 쓰고 매달린것도 잘 알려진 사실

이다. 결국 리명박이 《교별연설》에서 떠든 《변화》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완전파국으로 몰아넣은 자기의 반통일, 반민족죄행을 함리화하기 위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리명박이 저승의 문턱에 서있는 오늘날까지도 《원칙》을 운운하며 집권기간 저지른 범죄행위를 미화분식하고 자화자찬하는 역겨운 추태는 지금 온 민족의 저주와 분노를 일으키고있다. 리명박 《연설》을 두고 남조선언론들까지 《국민기만, 자아도취》, 《자화자찬의 일기를 쓸것이 아니라 대국민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조선민족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리명박과 같은 인간추물이 민족사에 커다란 비극의 상처만을 남겨놓은 반민족행위는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할수 없다. 민족반역자, 동족대결광신자인 리명박역도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그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한영수

단평 훈장이 아니라 교수대의 울가미를

남조선에서 리명박에게 그 무슨 훈장을 수여하는 문제를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훈장제작에 드는 돈만 해도 무려 5 000만 원이라고 한다. 결국 리명박내외가 스스로 1억원에 해당하는 훈장을 가지게 될것이다. 문제는 훈장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때만이 아니다. 원래 훈장이란 사회공동의 리익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것이다. 리명박이 집권기간 한치이란 외세에 굴종하여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고 온갖 반역적책동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준것밖에 없다. 반민족적이며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으로

종계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빠뜨리다 못해 전쟁의 문어구로 몰아넣은 죄악은 또 얼마나 큰것인가. 이런자가 그 무슨 《법》과 《관례》를 운운하며 거역이 들어간 훈장을 넘겨대고있으니 그야말로 천벌의 극치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를 두고 《뻔뻔함을 저루는 올림피이 있으면 금메달감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고 아우조소하고있다. 예로부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자에게는 벌을 주라고 하였다. 만고역적 리명박에게는 훈장이 아니라 교수대의 울가미를 선사해야 한다. 이것은 민심의 일치한 요구이다.

서희



조국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



만평 < 너 두 리 >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요구

남조선의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4일 론평을 발표하여 미국과 당국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견여치울것을 요구하였다. 론평은 북의 제3차 지하핵시험을 두고 미국과 현 《정부》가 그 무슨 《추가도발》을 운운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최근의 엄중한 사태는 오랜기간 이어온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단절된 남북관계가 불러온 필연적 귀결이라고 론평은 규탄하

였다. 론평은 반세기를 넘긴 북미대결의 력사적과정은 힘을 앞세운 강경책으로는 해결 못을 골부시킬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조선반도를 뒤덮고있는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갈림길에서 《정부》가 미일협력이니, 유엔 《제재》니 하는 따위의 굴욕적인 방식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조선반도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립장에서 남북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민족안에 엄청난 시련이 가로놓인 지금 대결과 반목이 아닌 남북공동선언리행의 길로, 교류와 협력,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5.24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리명박역적패당의 반민족적죄악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것이다

《나 하나 욕먹고 나라가 커진거 아니냐》

지난 19일 남조선에서 《(대통령) 고별연설》을 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리명박의 말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평했듯이 《자기 착각의 대명사로 끝까지 자화자찬》한 《고별연설》이라는것도 기막막하지만 후에 한 이 말은 과대망상으로 차있다.

《커졌다? 도대체 뭐가 커졌는가. 우선 리명박의 특성이 커졌다.》

남조선인민들이 하지 말라는것만 강제로 내밀어왔으니까.

남조선을 조물바다로 만든 2008년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통산철거민을 불태워죽인 《신도시개발》, 언론장악, 언론독제를 노린 《락화산인사》와 《미디어법》 계약, 《세종시수정안》 강행소동, 로동의 권리를 짓밟는 쌍봉과 한진사태...

《불도젤》인 리명박이 특색으로 제일 신나게 해제것은 뭘이뭐니 《4대강사업》 일것이다.

인민들이 제발 그만두라고 했음에도 《불도젤》날을 짝박았으니.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탕진하고도 부실한것으로 결말이 났는데 리명박은 해외에까지 나가 자랑이다.

퇴임을 앞둔 리명박이 요즘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마 저주스러운 집권 5년간에 저지른 행적에 대한 분노한 남조선인민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여간만 국성을 부리지 않고있다.

15일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리명박은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 인지도가 생겼다.》고 하였는가 하면

18일 라디오연설이라는데는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정말 가슴 아파게 생각한다.》느니, 자기는 《(대한민국)의 가장 행복한 일군》이었다느니 뉘니 하면서 갖은 감언리설을 늘어놓았다.

남조선집권이 이미전에 리명박의 집권기간 《국정운영》에 대해 락적점수를 매겨놓았고 이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첫번째

《 커졌다 》

그속에서 커가건 인민들의 한숨소리고 빛보따리다.

《가난하다》는 영어의 뜻으로 불리우는 《푸어족》을 레들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을 얹만 해도 경제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 나이가 되여 집에 들어가서도 가난에 쫓겨우는 《리타이어푸어》, 자영업에서 실패한 《소호푸어》, 《내 집마련의 꿈》이 깨진 《하우스푸어》, 련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의 《베이비푸어》, 부동산투기로 돈을 잃은 《펜트푸어》, 남조선전체 인구의 60~80%가 《푸어족》이라고 한다.

푸어 하고 내쉬는 《푸어족》의 한숨소리에는 1 000만원의 대학등록금이나 아동폭력, 성폭력, 살인 등에 시달린 사람들의 원망은 속하지도 않은것이다.

인민들의 생활이 이처럼 어려운데도 리명박은 자기 《행복한 일군》이라고 자랑하고있다.

서민들의 시름겨운 얼굴을 보는데, 그들의 한숨소리, 원망소리를 듣는데, 그들의 맘을 짜내는데가 리명박의 《행복》인것 같다.

못할것이 없다는 《무소불위》의 특성이 생기니 어별도 커졌다.

전직 《대통령》들까지 정치적음해와 보복으로 비명횡사하게 한 참과,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면서도》협잡의 방법으로 퇴임후의 집을 마련해보려다 틀장난 《내곡동사저부지매입》 사건도 그리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몇가지 사실은 리명박의 어별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준다.

엄청난 부정부패행위로 감옥살이를 하는 친인척, 심복들을 놓아준 《특별사면》늘음을 벌렸는가 하면 제작비만 수만US\$가 드는 훈장을 스스로 받았다고 한다.

권력은 돈을 낳는 황금거위로 여기며 부정부패와 폐물폐덕을 일삼아온것이 훈장받을 노릇이라니 거부기잔등에 털었다고 해도 이보다 놀랄 일이 아닐것이다.

어별이 커지다 못해 더러운 정치적음행이 다하는 오늘까지도 동족을 물어메치려고 이발을 드러내고있다.

공화국이 평화적인 위상발사라고 했던간 한사코 《미싸일》이라더니 정작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공적으로 오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아무재기치며 《제재》

명당 자살률도 10년전보다 130.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34만마다 1명, 하루평균 43명이 자살하고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지고있다. 이중에서도 80대 이상 노인자살은 20대청소년 자살자의 5배에 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자살률은

수도는 구걸한다.

속대에 오른 민중이처럼 노는 리명박에게 옛이야기 하나 하겠다.

고대그리스의 이소프우화중에 《법의 가족을 쓴 하늘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어리석은 하늘소가 법의 가족을 쓰고 위세를 뽐내다가 그만 법의 울부짖음소리를 낸다는게 하늘소울음소리를 내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더 망신당했다는 내용이다.

제 처지도 모르고 미국을 등에 업고있으니 저도 《법》인가 해서 헛헛거리려는 것이 꼭 우하의 비루먹은 하늘소꼴이다.

5년내내 《홍수통일》 망상만 꿈꾸면서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대결에 환장하던니 민족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어디까지 닿았는지 모르고있다.

그러나 《비핵, 개방, 3 000》이 《원칙있는 대북정책》이었다고 나팔불고있는것이다.

정말로 커졌다. 지난 5년간 저지른 리명박의 천고죄악이, 리명박에게 천벌을 내릴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민족의 원한과 분노가 커졌다.

리명박은 목을 늘어 민족과 력사가 내리치는 칼을 받을 준비나 잘해야 할것이다.

김정혁

수는 2006년 182만여건에서 2010년 217만 2 000건으로 늘어났고 그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는 같은 기간 45만여건에서 58만여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범죄를 막아야 할 공무원들까지도 범죄행위

를 하여 공무원범죄자수도 2006년 1만명에서 2010년 약 1만 5 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더우기 반민민적인 악정만을 일삼는 리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오늘의 남조선은 민주, 민권의 불모지, 사적몰탈 인간생지옥으로 전락되어있다 조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6.25전쟁 직후의 어렵던 시절보다도 더 비참해보인다.》고까지 평했는가.

어찌 그뿐이겠는가. 남조선에서 범죄발생건

조진반도정세가 예측할수 없는 대결국면으로 치닫고있다.

2월에만도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외세와 야합하여 광란적인 해상연합훈련과 해상철축한기련합훈련, 해상기동훈련, 《전시작전준비훈련》, 포사격훈련 등 특색공군의 각종 전정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았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잠수함과 이지스순양함을 비롯한 각종 전정장비와 해병대부대를 포함하여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었다.

남조선에서 호전세력이 벌려놓은 각종 북침전정연습들은 단지 2월 한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리명박 《정권》이 등장하여 남조선에서 벌어진 대결과 전쟁으로 적극 부추겼다.

더우기 력대 《대통령》으로서의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합동화력시범훈련에 직접 참가하여 《군의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하고 부과 싸워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피대를 돌구면서 군부호전세력을 동족과의 대결과 전쟁으로 적극 부추겼다.

또한 군부호전장들을 내세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부르짖게 하고 동족을 《최대의 주적》으로 선포하면서 북남대결을 악화하게 고취하였다.

보수당국의 주관하에 6.25전쟁기념행사, 서울수복기념행사, 인천상륙작전재현행사 등 반공화국대결

산철거민들을 무참히 불태워죽인 통산참사, 최루탄과 전자총격기까지 동원하여 과업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한 쌍봉자동차조과업진압사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성북도 구미시에서 일어난 불산가스루출사고 등은 남조선의 현실이 과거와 다름없음을 똑똑히 실증해주는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인 일한 《대통령》》이라고까지 자랑하고있으니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우용이 아닐수 없다.

리명박이 임기를 마치는 때까지 오그랑수를 다 쓰며 어리석은 광대놀음을 벌려놓고있지만 그것은 제가 가는 저승길우에 올리는 장송곡에 불과하다.

최근의 지은대로 가가마련이 라고 역도에게 이제 차례질것은 지옥의 올라기미뿐이다.

본사기자 리광성

5년간 벌여가자면 전쟁위협

은 반역 《정권》의 반공화국 대결정책과 전쟁책동의 산물

리명박이 임기를 마치는 때까지 오그랑수를 다 쓰며 어리석은 광대놀음을 벌려놓고있지만 그것은 제가 가는 저승길우에 올리는 장송곡에 불과하다.

최근의 지은대로 가가마련이 라고 역도에게 이제 차례질것은 지옥의 올라기미뿐이다.

본사기자 리광성

리명박이 력대 최대의 규모로 벌여지고 그것이 TV로 남조선전역에 배겨이 실황중계되어 사회전반에 동족대결을 고취하였다.

무력증강을 북침전정도발을 위한 기본고리로 삼은 리명박보수당국은 집권 첫해에 상전의 발명에 무릎을 꿇고 예결복결하여 미국산 무기구매지위를 끌어올림으로써 최선전정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끌어들이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는 미국으로부터 《F-15K》 전투폭격기와 그에 장착할 정밀타격용미사일, 조기경보통제기, 무인정찰기, 지관통용합동정밀유도탄을 비롯한 각종 침략전정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다.

리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후 2년동안 해외에서 각종 침단무기를 끌어들이는데 쏟아부은 자금은 88억US\$로서 이전 《정권》에 비해 무려 20억US\$이상이나 많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정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갔다.

리명박의 집권 5년간 남조선에서는 최대규모의 합동화력시범훈련, 대규모 해상합동훈련, 공중급유훈련, 예비군지격수훈련, 민간기업들의 수송훈련 등形形色색의 전정연습이 수없이 감행되었다.

훈련지역도 서울이북지역으로 점차 옮겨 주로 군사분계선립지역과 조선서해재현행사 등 반공화국대결

수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여졌다.

남조선언론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과 야합하여 2008년부터 2010년말까지 벌려놓은 대규모합동훈련은 120여차, 단독주요군사훈련은 무려 980여차에 달한다.

광란적인 전정연습소동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속에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각종 특대형모략사건들이 련이어 꾸며졌다.

리명박 《정권》은 모략적인 합침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구실로 정세를 극한으로 몰아가다가 끝끝내 북남 사이에 불과 불이 오가는 연평도교각사건까지 벌여냈다.

여기에서 교혼을 찾은 대신 호전세력들은 전정연에 들떠 나머지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해나서는 특대형도발사건들을 련이어 일으킴으로써 온 겨레의 격분이 하늘에 닿게 하고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할아오르게 하였다.

리명박 《정권》이 등장하여 5년간 저지른 반민민적 인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파국에 처하고 이 땅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험악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민족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런 극악한 반민민적역사, 호전광이 악작까지 숨을 쉬고있는것자체가 비극적이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전쟁에 미쳐들아간 리명박역도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리명박이 력대 최대의 규모로 벌여지고 그것이 TV로 남조선전역에 배겨이 실황중계되어 사회전반에 동족대결을 고취하였다.

무력증강을 북침전정도발을 위한 기본고리로 삼은 리명박보수당국은 집권 첫해에 상전의 발명에 무릎을 꿇고 예결복결하여 미국산 무기구매지위를 끌어올림으로써 최선전정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끌어들이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는 미국으로부터 《F-15K》 전투폭격기와 그에 장착할 정밀타격용미사일, 조기경보통제기, 무인정찰기, 지관통용합동정밀유도탄을 비롯한 각종 침략전정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다.

리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후 2년동안 해외에서 각종 침단무기를 끌어들이는데 쏟아부은 자금은 88억US\$로서 이전 《정권》에 비해 무려 20억US\$이상이나 많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정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갔다.

리명박의 집권 5년간 남조선에서는 최대규모의 합동화력시범훈련, 대규모 해상합동훈련, 공중급유훈련, 예비군지격수훈련, 민간기업들의 수송훈련 등形形色색의 전정연습이 수없이 감행되었다.

훈련지역도 서울이북지역으로 점차 옮겨 주로 군사분계선립지역과 조선서해재현행사 등 반공화국대결

수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여졌다.

남조선언론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과 야합하여 2008년부터 2010년말까지 벌려놓은 대규모합동훈련은 120여차, 단독주요군사훈련은 무려 980여차에 달한다.

광란적인 전정연습소동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속에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각종 특대형모략사건들이 련이어 꾸며졌다.

리명박 《정권》은 모략적인 합침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구실로 정세를 극한으로 몰아가다가 끝끝내 북남 사이에 불과 불이 오가는 연평도교각사건까지 벌여냈다.

여기에서 교혼을 찾은 대신 호전세력들은 전정연에 들떠 나머지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해나서는 특대형도발사건들을 련이어 일으킴으로써 온 겨레의 격분이 하늘에 닿게 하고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할아오르게 하였다.

리명박 《정권》이 등장하여 5년간 저지른 반민민적 인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파국에 처하고 이 땅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험악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민족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런 극악한 반민민적역사, 호전광이 악작까지 숨을 쉬고있는것자체가 비극적이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전쟁에 미쳐들아간 리명박역도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지난 5년간 리명박역도를 반대하는 반 《정권》 투쟁의 불길은 온 남녘방을 휩쓸었다.

